

## 기독교 고등교육과 세계관

박문식 교수(한남대학교)

본 고에서 저는 교육에 관한 어떤 정의나 규명, 또는 교육학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적 실무에서 느꼈던 고민하였던 점과 나름대로의 얻어진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하나의 학문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관에서 더 학적으로 나아가거나 다듬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철학이나 신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버트 윌터스는 철학은 사물들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신학은 사물들의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피조물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관한 것이라면 신학은 세상의 악과 그 치료책에 관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학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와 학문을 이야기할 때, 또는 기독교와 교육을 이야기할 때에도 항상 비슷하게 겪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학문 또는 기독교와 교육을 같이 놓고 생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하신 학자들이나 교육자들에게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학문의 현장이나 교육의 현장에서 이미 기독교라는 가치는 아주 미미해 졌거나 사라지고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공교육은 물론이고 사립의 고등교육은 굳이 기독교를 넣지 않아도 잘되고 있고, 대부분의 학문에서도 심지어는 신학에서조차도 기독교를 강조하는 것은 학문의 품위를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해결이 없이는 그 다음의 이야기 즉, 교육이라고 하는 실천은 좀 열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짧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그러한 가치관은 이 시대의 정신이요, 이 시대의 정신은 곧 서구의 지성이요, 서구의 지성이란 진리를 자연법칙에 근거한 사실로 볼 뿐 인간의 행위를 위해 주어진 규범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개개인의 가치체계에 해당하는 취향이나 윤리·도덕적 또는 종교적인 영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치' 및 '당위'라고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서 배제되어있고, 그 대신 객관적이라고 하는 '사실'과 '존재'에 묶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포스트모더니티의 서구의 지성은 오늘날의 교회에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진리의 공적인 가치의 많은 부분은 세상에게 내어주고 그 대신 개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좁은 영역에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교육은 내가 하고 학문도 내가 하는 것인데, 그곳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교육자의 길로 들어설 때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에 의

해 판단을 합니다. 학문과 연구를 시작할 때도 먼저 이 일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에서 치밀한 가치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일이 주어지면 그 때 부터는 가치가 들어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는 대신 내용(컨텐츠)으로 가득 채웁니다. 컨텐츠로 채워진 교육현장에 나는 없고, 따라서 학생들도 없게 됩니다. 더구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학교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매체에 연결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용위주의 교육을 하면 곁돌게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어로 하자면 학교에는 점점 내용은 많아지지만 거기에서 들을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전인적으로 자라고 변화되는 것은 이야기 즉, 네러티브에 담겨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뫼비우스의 띠, 홍부와 놀부, 신데렐라, 노아의 홍수, 모세와 홍해 등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학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사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가치에 의해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식적 교육과정 뿐만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돌아가 봅니다. 학문이다 교육이다 하면서 왜 기독교를 내세우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독교라 함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현대의 기독교 분파주의와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게 된 오염된 기독교를 - 불신자들이 흔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의 겉모습만을 보고 비판하는 데 그러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다 -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 교육은 바로 성경적 교육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학문을 성경적으로, 교육을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까? 여기서 성경적이라고 한 말도 사실은 매우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라고 할 때 요즘은 보통 어떤 단순화된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객체이면서 주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을 이용하려 하고 심리학자들이 성경을 이용하려할 때, 그리고 교육자나 목회자들이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학교나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할 때, 성경은 이미 어떤 수단에 다름없게 되기가 쉽습니다. 로이드존스 목사와 맥을 같이 하는 존 맥아더 같은 분은 소위 요즘 잘나가는 이머징처치의 목사들을 복음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복음의 가장 기본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덜 떨어진 다원주의 내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근본, 진리의 토대라고 하는 맥락에서의 말이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에 관한 더 깊은 논의는 여건상 불가하므로 몇 마디로 짚고만 말겠습니다. 자연계의 만물의 군상이 진리의 토대위에 창조된 것처럼 학문의 모든 분파도 창조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학문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피조물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왜곡되어 본래의 선한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학문도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육으로 집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화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교육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의 기독교를 통해 대학이 시작되었고, 개혁자들에 의해 공교육 등이 구체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 과학적 업적은 기독교적

바탕위에서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주된 동기는 성경적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와 탈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지나면서 개신교진영은 교육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에서 지고 근대과학의 충돌로 심하게 다치고 나서 대체로 사적 부문으로 좌천되는 것을 용인했다고 레슬리 뉴비긴은 지적했습니다. 그 대신 서구의 정신은 기독교와는 달리 근대과학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서로 양립이 가능한 동양적 사상 즉, 다신주의 또는 다원주의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한 인간인 교사가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을 여러 학문적 주제들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행하는 실천적(프락시스) 총체를 말합니다. 교육의 내용에 관해서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그 대상인 학생들을 생각해 봅니다. 똑 같이 피조된 인간으로서 복잡하기 그지없는 전인적 존재입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삶을 주제로 하여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생명과 삶을 위하여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 내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차원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어떤 교육과학적 측면 또는 교육공학적인 측면 이전에 피조된 세계에서의 선한 삶과 인생의 사명 즉, 문화사명의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독교 교육은 요즘 유행하는 실용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서구의 사상과는 다르게 매우 독특하여 포괄적인 실재를 추구하고 참 가치에 근거한 진리의 추구라는 목적이 뚜렷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뇌벨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성경적 가치를 육성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재생산 능력을 준다. 이러한 가치들은 보통 사람들이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에 따라 기꺼이 살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결정적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우리 대학의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육 인식 또는 문제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히 언급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살펴봐도 좋을 듯 합니다.

환원주의 - 생물의 궁극적 실재를 물리(소립자), 화학적(DNA) 견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학생들을 어떤 특정한 측면만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 못하는 것을 IQ 탓으로만 돌린다든지, 지방대생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들입니다. 한남대생들은 대기업은 안된다든지, 유학은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인간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업교육중시주의 - 대학의 경쟁력을 취업률로 측정한다든지 교육과정을 취업위주로 재편한다든지 하는 식의 방식입니다. 이런 류의 시도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연결지어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을 갖는 것으로서 여기에 감히 제동을 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

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학이나 교육학자들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진리의 탐구와 문화의 창조라는 사명을 망각한 이런 식의 드라이브는 쇠락의 지름길입니다.

엘리트집중주의 - 한 때 우리나라의 일류기업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상위 몇 명이 수 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슷한 증상은 서울은 엘리트, 지방은 비엘리트라고하는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것도 저는 엘리트집중현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는 인문계와 실업계의 인식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교육이 이런 식이라면 실사구시를 강조하였던 개화기의 실학정신은 또 다시 실종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체주의와도 같다고 봅니다. 종교적으로 엄청난 무리이죠 특히 기독교적으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 기업에서는 이제는 쉽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품질평가지주의 - 최근에 교육부는 어떤 대기업의 의견과 산자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공과대학 중심으로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은 이 교육성과의 정량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습을 품질이라고 놓고 학생을 제품으로 환원시키는 이 제도는 학교를 하나의 공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수들이 여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과연 그러한 공식이 존재는 하는 것인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적으로 비약이 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제대로 된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육이 영똥한 바람에 의해 심하고 요동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실용주의 - 과학문명의 유익은 교육에 있어서도 급속도로 실용주의로 흐르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학이 진리 탐구의 전당이라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논문의 임팩트팩터는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가 압권입니다. 학문도 나에게 쓸모가 있고 그것의 유익함이 증명되어야 인기가 있습니다. 학문하는 과정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 짜여집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들은 계속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아예 퇴출당하기도 합니다. 도서관에서 조차 점차 그런 책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보기에에도 이제는 더 이상 대기라는지 명저라는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기술계에 아이작 뉴턴의 통찰만한 것이 없고 임마누엘 칸트만한 지성은 이제 기대하기 힘들게 된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노벨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모델 - 교육자의 덕망으로 언제부턴가 CEO 개념이 중요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지 교육기관의 수장이 아니라도 하나의 실험실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자본을 끌어들이고 실험실에서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경영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교육과정도 소비자 중심으로 짜여 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의 소비자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적 입장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의 소비자는 학생 당사자 그리고 학비지원을 해 준 부모님이라는 생각입니다. 가정을 기업식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똑 같은 이유로 학교는 기업이 아닌 것입니다.

교육단계지체현상 - 요즘 우리 대학생들은 발달단계 상으로 좀 나이에 맞지 않은 것들을 보

니다. 예를 들어 언어와 수리 등의 기본이 많이 안 되는 편이고 따라서 대학에서 다시 고등학교 과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인으로서의 독립심이나 의지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학생으로서 자기 자각이 부족하여 중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북미권의 교육도 소위 저밀도교육으로 학력저하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밀도 초등교육을 시키는 대신 너무 주입식의 학적인 것에 치우친 나머지 낙오자들을 만들고 있으며 그들은 발달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대학생은 북미권의 고등학생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편에 이러한 지체 현상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교회와 관련된 종교활동을 제외하면 순전하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C. S. 루이스의 질문과 같이 세속적인 삶에서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 기독교세계관을 택했습니다. 일련의 독서를 통해서 기독교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연스럽게 제 전공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수미일관한 자세가 필요함을 느꼈고 그것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말할 때 우리는 쉽게 안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된다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된다고 실현시키는 많은 교육현장이 있으며 단지 우리가 알려 하지 않는 다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쉬운 해답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신선한 눈이다. 성경적 세계관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답을 발견하는 비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 시키고 싶다. 성경적 세계관은 질문을 제기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변혁한국2007/교육그룹/교육의 현장과 방법론/2007. 10. 10